

국어사전 돋보기 · 겨레말 우체통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소식

■ 국어사전 돋보기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

\_ 조재수 /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 위원

글자를 맞추어 말을 적는 법을 '맞춤법', '철자법(綴字法)', '정서법(正書法)'이라 한다. 한글을 맞추어 말을 적는 규칙이 '한글 맞춤법'이고 북의 '조선말맞춤법'이다. 한자에는 한자 정서법이 있고 영어 등에는 알파벳 철자법(스펠링)이 있다.

오늘날 쓰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을 되새겨볼 필요를 느껴 여기에 세 가지를 인용해 본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의 각 형태소를 소리대로 적되 그 원형을 받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총론 1항>(한글학회, 1980.)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총칙 1항>(문교부 고시 제88-1호, 1988. 1. 19.)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것을 허용한다. <조선말규범집 총칙>(북, 국어사정위원회, 1987.)

모든 규칙이나 법규는 지키기 위해 만든다. 규정과 법규는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고 예외적인 허용 사례는 최소화해야 그 체계나 질서가 흔들리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도 그 원칙이 존중되고 잘 지켜져야 한다. 낱말 적기에서, 소리대로 적되 형태소의 원형을 받침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는 위의 세 규정은 표현은 달라도 그 정신은 같음을 알 수 있다. 말의 각 형태소를 소리대로 적되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한글 맞춤법도 교통 법규와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지켜야 할 규칙이다. 교통 법규를 자기 편의대로 적용할 수 없듯이 한글 맞춤법도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편의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자의 획이나 영어 스펠링을 정확히 쓰려고 애쓰듯, 우리말도 바르게 적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잡은몰이'와 '자진모리'

문교부는1956년 최헌배 선생 지도 아래 최초로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잡기 조사'를 하였다. '말수 잡기 조사'를 요즘에는 한자 용어로 '어휘(語彙) 빈도(頻度) 조사'라 한다. 고속도로 등에 '안개 잡은 곳'과 '사고 잡은 곳'이 있다. '사고 잡은 곳'을 요즘에는 '사고 다발 지역'이라 한다. 잡으면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꼭 '다발(多發)'이란 한자어로 고쳐 써야 할까?

'잡다'에는 '자주 있다'는 뜻과 '여러 번 거듭되는 동안이 짧다'를 이르는 뜻이 있다. 거듭되는 동안이 짧다는 것은 동작의 횟수가 빠르다(급하다)는 뜻이다. 잡은 기침, 잡은 숨결, 잡은 다음이질, 잡은 절구질 등이 그러하다.

국어사전에 '잡은'을 뿌리(어근)로 한 올림말이 더러 있다. 두 발을 잡게(빠르게) 떼어 걷는 '잡은걸음', 무엇을 잇달아 빠르게 두드리거나 치는 '잡은마치', 잇달아 자주 쬐는 '잡은방귀', 국악 용어로 빠른 가락이나 장단을 이르는 '잡은가락', '잡은몰이', '잡은장단' 등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국악 용어들은 그 표기가 일정하지 않다. '잡은'과 '몰이'의 표기가 그러하다. [주] 아래 보기에서,

- <큰사전>은 한글학회가 편찬한 큰사전(1929~1957)과 우리말 큰사전(1992)
- <국악대사전>은 장사훈(1916~1991) 저 국악 대사전(세광음악출판사, 1984)
- <표대>는 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1999)
- <북>은 북에서 편찬한 조선말대사전(1992)

- 잡은몰이 <큰사전><국악대사전> : **자진모리** <표대> : **잡은모리** <북>
- 잡은가락 <큰사전><북> : **자진가락** <표대>
- 잡은염불 <큰사전><국악대사전> : **자진염불** <표대>
- 잡은장단 <큰사전><북> : **자진장단** <표대>
- 잡은한잎 <큰사전><국악대사전> : **자진한잎** <표대>
- [참고] '늦은가락', '늦은한잎'은 <큰사전>, <국악대사전>, <표대> 일치함.

- 중몰이(-장단) <큰사전><국악대사전> : **중모리(-장단)**<북><표대>
- 휘몰이(-장단) <큰사전><국악대사전><북> : **휘모리(-장단)** <표대>

<큰사전>과 장사훈 저 <국악대사전>은 각 형태소의 말미를 밝혀서 '잡은'과 '몰이'로 적었다. '잡은한잎'은 옛 국악 가곡에서 가장 빠른 형식의 곡을 이르는 말로 한자어로는 '삭대엽(數大葉)'이라 한다. 여기 '몰이'란 급하게 몰아가는 장단을 이른다. '휘몰이'는 가장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급하게 몰아가는 장단이다.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아마 국악인들이 쓰는 입말을 따라 '잡은'을 '자진'으로 '몰이'를 '모리'로 적은 듯 하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잡은몰이'를 '자진모리'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국악 용어의 모든 '잡은~'을 '자진~'의 잘못, '~몰이'를 '~모리'의 잘못이라 풀이했다.

북에서는 '잡은모리', '중모리'는 '모리'로, '휘몰이(-장단)'는 '몰이'로 바르게 적던 것을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에서 '휘모리(-장단)'로 후퇴하여 모두 '~모리'로 적었다.

국악 용어가 일부분이나마 다른 전문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전에 올려진 것은 <큰사전>(1929~1957)부터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다. 장사훈(1916~1991) 저 <국악대사전>(세광음악출판사, 1984)은 국악 용어와 그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한 첫 국악 용어 사전으로 알고 있다. 이 사전에서 국악 용어의 표기를 옛 <큰사전>을 따른 점을 눈여겨볼 일이다. 그런데 국악인들은 써온 버릇소리대로 '잡은'을 '자진'으로, '몰이'를 '모리'로 적기를 고수하는 모양이다.

전문 용어의 표준화를 생각할 때 선배들이 바르게 닦아놓은 용어를 잘못으로 돌리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설명 '자진모리'로 쓰는 국악인도 그 설명에서는 '잡은 빠르게로 몰아가는 장단이나 곡조라 할 것이다. '늦은가락', '늦은한잎'도 '느진가락', '느진한잎'이라 하는지? 낱말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어 잘 이끌어 온 '잡은몰이', '중몰이', '휘몰이' 등을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 오히려 되살려 갔으면 한다.

#### '돌실라이'와 '셋골나이'

'돌실라이'의 '돌실'은 전남 곡성군 석곡면의 '석곡(石谷)'의 원래 이름이며, '셋골나이'의 '셋골'은 전남 나주군 다시면의 한 마을 이름이다. '-라이/-나이'는 '-**나이**'를 잘못 적은 것이다.

우리말 '냥다'에는 아이나 알 따위를 태어나게 하는 '냥다'와 솜, 털, 삼겹질 따위로 실을 만들거나 그러한 실로 천(피륙)을 짜는 '냥다가 있다. 모시를 냥고, 무명, 삼베를 냥는 모든 과정의 일이 바로 길쌈이다.

- \*예전에는 집집마다 무명을 **냥고** 손으로 길쌈하던 것을 지금은 기계로 짜내고 돈 주고 사 입게 되는 세상이다. <이기명: 고향>(어문각, 1947/1933)
- \*모친도 무명을 잘 앗고, 특히 한산 **쌈모시**를 잘 **냥아** 며칠 가도 솜씨 자량이 끊이지 않은 채 평범하게 살아온 춘부였다. <이문구: 장한몽(최종회)>(창작과 비평, 1976)

'**돌실냥이**'는 돌실 마을에서 냥은(짠) 삼베나 그 길쌈이고, '**셋골냥이**'는 셋골에서 냥은(짠) 무명베나 그 길쌈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지인들의 발음에 좇아 언론과 조사자들이 '**돌실라이-돌실나이**', '**셋골나이**' 등으로 적어 온 듯 하다.

'냥이'에는 섬유에서 실을 뽑는 '실냥이', 천이나 베를 짜는 '천냥이-베냥이'가 있다. '방직(紡績)'은 '실냥이', 방직(紡績)은 '천냥이' 또는 '베냥이'에 해당한다.

천의 감[재료]에 따라 명주냥이, 무명냥이, 삼냥이, 모시냥이 등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짠 막치 무명을 '막냥이'라 한다.

또 어느 철에 냥은(짠) 천이라는 말로 '봄냥이', '여름냥이'가 있고, 어디에서 냥은(짠) 천이라는 말로 '돌실냥이', '셋골냥이', '안동냥이', '한산냥이' 등이 있다. <큰사전>에 '-냥이'의 풀이 끝에는 '고양(高陽)냥이', '강진(康津)냥이'를 예로 보였다.

북의 <조선말대사전>은 고양 지방에서 생산되는 무명을 초판에서 '고양나이'로 올렸다가 증보판(2006년)에서는 '고양냥이'로 바로잡았다.

<문세명>, <큰사전>에서부터 오늘날의 모든 국어사전에 '**수나이**'가 올라 있다. 천 두 필 짚 감을 주어서 한 필은 받고 한 필은 짠 샅으로 주던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또한 '**수냥이**'로 고쳐 실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앞 형태소 '수-'는 그 말미(어원)이 떠오르지 않지만,

'냥이'는 아래 인용례와 같이 '하다'와 결합해 동사로도 쓰인다.

- \***명주냥이하느라구** 눈배린(눈 버린) 생각하느(생각하면) 진작 못 워쳐난 게 한이디오(한이지요). <순소희: 남풍>(어문각, 1996/1963)

'냥이'를 '나이/라이'로 적는다면 위에 들어 보인 여러 관련 낱말들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혼란 때문에 맞춤법 규정의 총칙에 '낱말의 각 형태소를 소리대로 적되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것이다.

'돌실라이/돌실나이', '셋골나이'를 '**돌실냥이**[돌실라이]', '**셋골냥이**[셋골라이]'로 바로잡아 익히기 바란다.



국어사전 돋보기 · 겨레말 우체통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우체통

우리 곁엔 **그들도 있다**

\_ 도원영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고 청탁과 함께 국어사전 편찬 환경과 작업 과정의 희로애락, 바람 등을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었다. '뭐, 할 얘기가 있나' 잠시 멈췄다. 곰곰 생각해 보니 잊지 못할 일들이 떠오른다.

1994년 3월 필자가 편찬실 식구가 되어 첫 출근을 한 곳은 고려대학교의 시계탑 건물 뒤편 어두컴컴한 복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방이었다. 남자 화장실을 마주하고 있었고 교수 연구실만 한 공간에 행정 부서, 전자 텍스트실, 사전편찬실이 함께 있었다. 올 여름보다 더 지독했던 1994년의 폭염 속에 연구소 식구들 모두 그 공간에 함께 있었다. 박물관 3층에 세 들어 지낼 땐 바로 옆 유물 보관실에서 새어 나오는 포르말린을 마시며 집필을 했다. 햇수로 5년을 채우는 동안 우리는 나중에 썩지 않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농을 주고받았다. 유물의 안전을 위해 난방 시설이 없었던 그 건물에서 우린 석유난로로 겨울을 났다. 출산 휴가에서 돌아온 필자는 특별히 더 진할 것도 없는 가스 냄새에 기절해 학교 보건소로 실려 가기도 했다.

어디 힘들었던 게 공간의 문제뿐이라. 축적된 경험이 없어 문서 작업이건 데이터 관리건 그땐 참 많이도 삽질을 했다. 중요한 자료를 직접 살펴야 할 땐 우리의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도서관 사서 앞에서 찢찢 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더군다나 사전 집필과 강의와 연구를 동시에 해야 했기에 몸도 마음도 고달팠다.

아무리 힘든 현재도 과거가 되어 버리면 아련하고 그리게 마련인 모양이다. 우리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만난 음식마냥 즐겁게 나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환경에서 사전 작업에 매진하는 팀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다. 필자가 한국학 분야에서 사전을 만드는 편찬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문학 사전, 민속 연희 사전, 인물 사전, 지리 정보 사전 등등을 편찬하는 팀들을 만난 바 있다. 우리가 특정한 용어를 집필할 때 찾아보는 전문 사전의 집필자들이다. 편찬실을 방문하고 작업 내용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박에 알아차렸다. '아, 그들도 있구나.' 겨우 깃든 좁은 사무실에서 시간과 비용에 쫓기며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그들. 자료 확인을 위해 주요 기관의 사서들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도 전에 없는 사전, 전보다 나은 사전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들. 해당 분야에서는 촉망받는 소장학자이지만 사전 편찬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3D 업종에 종사하는 이가 되어 지난한 작업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국어사전을 편찬하고 연구하는 우리의 환경이 그래도 좀 나은 게 아닌가 싶다.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편찬의 노하우와 운영의 지혜를 쌓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고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분야에서는 변방의 투사들이다.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참고 자원, 그리고 주변의 응원도 지원도 그들의 앞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겐 제법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엔 여전히 부재하거나 부족하여 갈증 상태에 허덕이면서 외로이 행군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을 바꾸어 줄 순 없어도 시간과 비용을 대어 줄 순 없어도 우리가 가진 편찬 자원과 노하우, 그리고 운영의 지혜는 나눌 수 있지 않은가. 국어사전 편찬자들이 연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우리 곁엔 **그들도 있다!**

## | 도원영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현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이면서 사전편찬 부를 맡고 있다.

■ 남녘말 북녘말

## 가시집, 가시아버지?

— 한정미 / 통일부 하나원 우리말상담실

《KOREA》가 눈물샘을 자극했다. 신파적 스토리라며 비판을 하는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필자에게는 남다른 다가오는 영화다. 어쩔 수 없다. 나의 이야기이고, 제자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이니 어쩔 수 없다.

남북 언어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으금없이 영화 《KOREA》로 화두를 연 것은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던 호칭 때문이다. 북한측 선수들은 누군가를 부를 때 으레 ‘동무’ 혹은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현정화 동무!”, “지도원 동지!”. 그에 반해 남한측 선수들은 ‘~씨’, ‘~님’, ‘~선수’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리분희 선수!”, “감독님!”.

무엇이라고 부르는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념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서로 다르게 유통되는 호칭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전달만 된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한 ‘동무’, ‘동지’라는 호칭은 조금은 낯설지만 그렇거니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념에 의한 호칭이니, 통일이 된 후 이념을 버린 호칭으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쉽게 정리가 될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족 호칭 중에는 그렇거니 하면서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면회는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는 금하고 있다. 탈북 자들의 신변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관계임을 확인 후 상호 일정을 조정하여 면회를 실시하는데 가족관계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해프닝이 자주 일어난다.

관계란에 삼촌아버지 · 삼촌어머니, 가시할아버지 · 가시할머니, 가시아버지 · 가시아머니, 아저씨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큰아버지 · 큰어머니와 면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당사자와 큰아버지의 성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생소하다. 남한의 작은아버지 · 작은 어머니를 북한에서는 삼촌아버지 · 삼촌어머니라고 한다. 남한의 외삼촌 · 외숙모도 북한에서는 삼촌아버지 · 삼촌어머니라고 해야 통한다. 그런가 하면 처갓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시집’이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인 · 장모보다는 가시아버지 · 가시아머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가시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 북한에서 발간한 어휘관련 출판물에도 가시할아버지 · 가시아버지라는 말이 정식으로 소개되어 있으니 이 말의 공적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저씨라는 말도 남한의 형부에 해당하는 말이다. 언니의 남편을 지칭하거나 호칭을 붙일 때 북한에서는 아저씨라고 한다. 친인척만 면회가 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저씨와 면회를 하겠다고 하니 남한 출신들은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자, 신청자인 ‘나와 면회자인 ‘큰아버지’의 성이 다른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족의 재구성으로 아버지 혹은 큰아버지의 성이 달라진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족의 재구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큰아버지의 성이 다를 수 있는 곳이 북한이다.

남한에서는 아버지의 형님내외에게 사용하고 있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라는 호칭을 북한에서는 아버지의 누나와 어머니의 언니를 일컫는 고모와 이모에 준하는 호칭으로 주로 사용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동생에게는 고모와 이모라고 하지만 부모의 손윗분들에게는 큰어머니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그녀의 남편은 물론 큰아버지다.

사정이 이와 같으니 가족관계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데, 그 차이를 확인하고 나면 허탈해 진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묻지 않아도 되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인 것을…….

! 한정미 !

숙명여대 국문학과에서 북한 문예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통일부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 문화적응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북한문화와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및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지붕갓

\_ 이길재 / 겨레말큰사전 새어휘팀장

벌써 어두컴컴하여 자세는 보이지 않으나 뒤에 밤나무가 우거져 있고 제법 {지붕갓이} 넓은 초가 앞에 오자 아낙네와 사내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슨 일이 있는 집 같았다. 《박연희: 홍길동》

{지붕갓을} 한 십삼 년 간이나 안 걸어 내고 그냥 이리저리 밀어 놓고 그렸단 말여. 그렇게 나중에 집을 이려 온 이가 참 옥봤어. {지붕갓이} 원체 두꺼운게.

동아일보의 연재소설 《홍길동》(1972. 9. 8.)과 새어휘 조사 자료에 나타나는 '지붕갓'은 《우리말큰사전》(1992)과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만 실려 있는 올림말로, 그 풀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말큰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지붕갓 [이] <건> 초가 지붕을 엮는 데에 쓰는 벗짚.  
지붕갓 [--갓] [명] <건> 초가지붕을 엮는 데 쓰는 벗짚.

두 사전의 뜻풀이에서 용도를 설명하는 부분 '초가지붕을 엮는 데에 쓰는'을 제외하면, '지붕갓'은 곧 '벗짚'이다. 그런데 위 예문의 '지붕갓'은 두 사전에서 뜻풀이한 '지붕갓'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붕갓이' '널다'와 '두껍다'와 같은 어휘와 결합하는 것을 보면, 분명 위의 예문에서 나타나는 '지붕갓'은 '초가지붕을 엮는 데 쓰는 벗짚'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벗짚'을 '벗짚이 두껍다', '벗짚이 널다'라고는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사전의 '지붕갓'과 위의 예문에 나타난 '지붕갓'이 서로 다른 말이거나, 사전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전자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갓'이 '벗짚'의 의미로 쓰인 경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전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지붕갓머리'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삭은 이영 고랑마다 버섯과 개망초까지 뛰어올라 자라고 있고, 호박 줄기는 이제 {지붕갓머리를} 다 휘뒀었다. 《전성태: 태풍이 오는 계절》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붕갓머리<sup>3)</sup>'는 '초가지붕'과 관련이 있는 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대조선말사전(제1판)》를 제외하면 기존 사전에서 '지붕갓머리'를 '용마루'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지붕갓머리'를 [지붕갓+머리]와 같이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때 '머리'는 '산머리'의 '머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의 꼭대기<sup>2)</sup>'를 나타내는 말이 분명하다. 따라서 '용마루'가 '지붕'의 '마루'임을 감안하면 '지붕갓머리'가 '용마루'가 되기 위해서는 '지붕갓'은 '초가지붕을 엮는 데 쓰는 벗짚'이 아니라, '지붕'과 같은 말이거나 '지붕'에 뜻 바탕을 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지붕갓'은 [지붕+갓]과 같이 분석할 수 있는데, '갓'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풀이가 다양해질 것이다.

'갓'을 '하늘갓<sup>3)</sup>'이나 '치마갓<sup>4)</sup>'의 '갓'처럼 '갓'을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주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가'의 방언으로 본다면, '지붕갓'은 '지붕'의 '가'와 같은 뜻을 갖게 된다. 또한 '갓'을 '지붕'이나 '그릇'의 기슭에 덧대어 그늘이 지게 하거나 무엇이 몸체에 직접 떨어져 내리지 않게 한 것의 뜻을 갖는 '갓'과 같은 것으로 보면, '지붕갓'은 '치마'가 될 것이다.<sup>5)</sup> '갓'을 '삿갓' 또는 '갓' 모양의 물건인 '갓'으로 보면, '지붕갓'을 '용마름'으로 볼 수도 있다. '용마름'이 '초가의 지붕마루에 덮은 'ㅅ'자 형으로 엮은 이엉'임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 모두 그 쓰임을 확인할 수가 없다.

지붕갓을 한 십삼 년간이나 안 걸어 내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붕갓'은 '이영'이거나 '이영'을 인 지붕'일 수도 있다. '지붕갓'은 낡고 헤어져서 비가 오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질 것 같다, '지붕갓과 벽난로의 굴뚝이 완성', '장명등의 지붕갓<sup>6)</sup>에서 모진 풍파를 지낸 세월을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등과 같은 쓰임을 고려해 보면 요즘 '지붕갓'은 '갓' 모양의 지붕'이거나 '물매가 있는 모든 지붕'을 나타내는 말로 생각된다. 하지만 원래 '지붕갓'은 '벗짚'으로 엮은 이영'을 인 '갓' 모양의 초가지붕'을 이르던 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갓'은 '지붕갓머리'가 준 '용마루'일 수도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견해일 뿐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1) '지붕갓머리'는 《조선말사전》(1962)에 '용마루의 방언'으로 처음 실렸고, 이후 《현대조선말사전(제1판)》(1969)에는 '지붕'의 '용마루'와 '치마'의 '둘레', 《현대조선말사전(제2판)》(1982)에는 '지붕'의 '용마루', 《우리말큰사전》(1992)에는 '용마루의 방언', 《조선말대사전》(1992)와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07)에는 '용마루'로 풀이 되어 실린다. 《우리말큰사전》은 《조선말사전》은 '지붕갓머리'를 '용마루'의 방언으로 풀이하고 있는 반면, 《조선말사전》 이후 북측에서 간행된 사전은 모두 '지붕갓머리'를 문화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북측의 문화어 정책의 일환이었던 1960년대 중엽의 '어휘정리사업'에 의해 《조선말사전》에서 방언으로 풀이하였던 올림말을 문화어로 처리한 결과이다.

2) 《우리말큰사전》의 머리1㉔, 《조선말대사전》의 머리1㉔, 《표준국어대사전》의 머리1㉔ 참고.

3) 하늘갓.

4) 치마도리의 가장자리.

5) 《현대조선말사전(제1판)》의 '지붕갓머리' 참고.

6) 석등의 옥개석(지붕돌).

■ 겨레말 소식

### 사전 편찬기관 실무자 초청 자문회의 개최



사업회는 지난 8월 9일 국어사전 사전 편찬 전문가들에게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몇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사전 편찬 전문가 초청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도원영(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편찬부 부장), 이승재(국립국어원 언어정보팀 팀장), 안상순(전 금성출판사 사전팀

장)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전 편찬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겨레말큰사전》의 발음 정보 제시 방식과 흉내말의 등재 범위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겨레말큰사전》의 발음 정보 제시 방식과 관련하여 안상순 팀장은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올림말 바로 뒤에 원어 정보가 아닌 발음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 동형어 배열 순서를 짐작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사전 이용자가 동형어를 찾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원어를 올림말 바로 뒤에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도원영 실장은 남과 북의 발음이 같은데도, 각각 발음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남과 북이 서로 같게 발음하는 것은 발음정보란에 한번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겨레말큰사전》 흉내말 등재 방식과 관련하여 이승재 팀장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체계상의 빈칸으로 남아 있는 흉내말(소복소복~소복소복~수복수복/소곤소곤~소군소군(미등재어, 체계상의 빈칸)~수군수군) 가운데 말뭉치에서 쓰임이 확인되는 흉내말에 한해 《겨레말큰사전》에 적극적으로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업회는 이번에 제시된 사전 편찬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겨레말큰사전》의 발음 정보 제시 방식과 흉내말 등재 방식 등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 겨레말 소식

### 새어휘 문헌어 교열 사업 시작



사업회는 지난 7월 5일 새어휘(문헌어) 교열 사업을 위한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집필된 새어휘(문헌어) 원고의 교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연수로 편찬실 직원과 용역 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문헌어 교열시 ‘올림말과 예문의 일치 여부’, ‘올림말 표기의 남북형태표기 안과의 일치 여부’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이 강조 되었다. 또한 문헌어 올림말의 뜻풀이 수정, 정확한 형태분석, 성구 집필 등 교열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새어휘(문헌어) 교열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제57차 남측편찬회의 개최

사업회는 지난 7월 9일 제57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고은 이사장, 홍종선 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12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